

한국과 러시아의 건축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근대건축사에서 우리와 러시아와는 무슨 관계에 있었는가. 미국과의 관계 못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텐데. 더구나 우리 땅에서는 1904년, 러일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물론 1945년 이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로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최근 조선일보(1995.5.10)에는 <사바찐의 수기>도 발굴되어 러시아 건축가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건축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한편 1896년 5월 26일 러시아 페테스부르크(Petersburg, 聖彼得斯堡府)에서의 황제(Nikolai 2세) 대관식에 참석한 조선 전권공사 민영환과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Lobanov)의 개별 회담이 있는 후, 러시아 군사장교를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의 경제상태를 연구, 원조한다는 명분하에 고문관 외에 군사장교, 학자, 기술자들을 보내 왔다...1883년 봄, 러시아인 건축가도 들어 왔다. 그는 이바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 사바찐(Afanasij Ivanovich Seredin Sabatin, 1860?-?)이었다...”

‘전람회의 그림’ 과 한 러시아 건축가

“Tableau d'une Exposition” & A Russian Architect

金晶東 / 목원대 건축과 교수
by Kim Jung-Dong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러시아 건축가들에 대해 이것저것 자료를 뒤지다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찾게 되었다.

평소 이 책 저 책을 뒤지다 보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부수입으로 주워 담을 때가 있다. 미술, 음악,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 얻어들은 것이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Modest Petrovich Mussorgsky, 1839.3.21-1881.3.28)의 <전람회의 그림, Tableau d'une Exposition(1874)>이라는 음악이었다. 그의 이름과 음악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는 하다. 무소르그스키의 조곡 <전람회의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1백 20여년 전 피아노 곡으로 작곡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은 라벨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편곡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간혹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심심풀이로 몇 가지 의문을 품어 왔었다.

그것은, 전람회에 걸렸던 그림은 어떤 종류의 그림이었을까, 전시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어느날 우리 대학의 음악대학 교수에게 심심파적으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무슨 그림이 걸렸었느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어떤 러시아의 그림이 아니었겠느냐”고 그는 답했다. 답이 역시 불확실하기에, 그림 도대체 <전람회의 그림>에는 어떤 종류의 그림이 걸려 있었기에 그런 불멸의 음악을 만들었을까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의 주인공인 러시아의 건축가, 빅토르 하르트만(Victor Hartmann, 1834-1873)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르트만과 무소르그스키

하르트만을 알기 위해 우선 러시아의 음악가 무소르그스키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무소르그스키는 16세기말 이래 러시아 프스코프주(州) 카레보¹⁾에서 대지주의 네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15만 정보가 넘는 광대한 땅을 소유한 대지주로서 뿌리 깊은 귀족 계급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행복이 보장된 러시아의 귀공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농노(農奴)의 딸이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귀족의 피와 천민의 피가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대지주, 어머니는 그의 노예... 무슨 신과조같지만. 그는 열살 때 페테스부르크로 이사했다. 페트로파브로프의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관습에 따라 10세 때(1849.8), 근위 사관학교(近衛사관학교) 예비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사관학교를 다니고(1852-56) 졸업한 후에는 프레오브라젠스키 수비연대에 장교로 배속되었다. 우리 조선과 러시아는 아주 무거운 관계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극동에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 올 때이고.

보장된 미래가 열리던 22세 때(1858.7), 그는 초급 장교시절에 군을 떠나게 되었고 무직의 음악가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출신 성분과는 반대로 나갔던 것이다. 이제 그는 그의 출신성분 그룹으로부터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1861) 농노

해방에 따른 지주계급의 몰락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민중은 비참했다. 무소르그스키의 집안도 망해 버렸다.

백작 친구(아르세니 콜레니시체프 쿠투초프)의 집에서 더부살이도 했다. 또한 퇴역 해군장교 파올나우모프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의 집에서 하숙생활도 했다.

그의 음악친구로는 같은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던 립스키 콜사코프와 오페라 가수 오시프 페트로프가 있었다. 그들은 어려울 때 그에게 위로가 돼 주었다.

한 때는 어울리지 않게 운수통신성의 관리가 되기도 하고 (1863-67), 또한 궁내성 산림과와 검열국(검열원) 등에서 근무하며 17년간 입에 풀칠을 하였다.

하르트만의 건축을 노래해

그는 이른바 국민주의 음악가였다. 그의 독특한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민중, 빈민에 깊숙이 들어가 노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음악은 처절하고 비애에 찼다. 그러던 전람회(전람회)에 걸려있던 그림은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그 의문의 하나는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그림은 순수회화가 아니고 '건축 드로잉 작품'이었던 것이다. 우리 건축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이 이것인 것이다. 무소르그스키가 32세 되던 해 그와 절친했던 건축가, 하르트만은 요절해 버리고 말았다. 하르트만은 채 40살밖에 못살고 떠난 불세출의 러시아 건축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르트만의 이름은 어떤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무소르그스키는 그보다 다섯 살 연상이었던 하르트만의 유작 건축작품 전람회가 열린 1874년, 상트 페테스부르크의 한 전람회장에서 그의 건축설계도면, 스케치 등 10여장을 보고, 하르트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10편의 피아노 곡을 작곡해 그에게 바쳤던 것이다.

이는 아마 건축가의 작품을 음악가가 작곡해서 세상에 내놓은 첫 작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곡들의 타이틀도,

카타콤베 (Les Catacombes²⁾)

옛 성 (Le Vieux ch teau, 古城),

튀일리 궁전 (Tuilleries Dispute d'enfants apres jeux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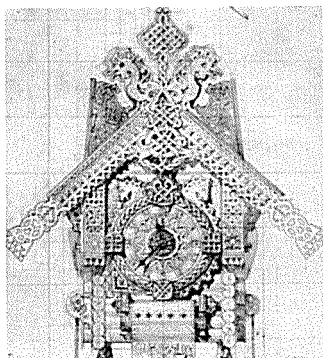
프롬나드 (Promenade, 산책로),

리모주의 시장 (Limoges- le march⁴⁾)

키에프의 대문 (La grande porte de Kiev),

오두막 (La cabane sur pattes de poule, 닭의 다리 위에 있는 오두막),

발레를 위한 무대장치 (Ballet des poussins dans leur coquille, 달걀껍질 속의 병아리 발레), 등 건축과 관련된 주제들



암탉의 다리 위에 선 바바 야기의 오두막, 러시아식 시계



키에프 시의 문, 정면

을 달게 된 것이다.

그 중의 하나, '오두막 집'의 도면이 한 장 남아 있다.

그리드가 있는 종이에 먹선을 사용해 그렸는데, 마치 탁상시계 같은 정면을 갖고 있다. 기단은 두껍게 느껴져 안정감이 있고 몸체는 원형기둥과 보를 갖고 있다. 지붕의 박공이 뿔자형으로 길게 뻗어 있다. 장식이 몸체전체를 휘감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라기 보다 조각적인 소품으로 보인다.

그러면 하르트만은 누구인가. 국민주의 건축가라는 것이 러시아에 있었는가. 국민주의 건축은 무엇일까. 나의 무지를 스스로 탓할 수밖에 없다. 무소르그스키가 국민주의파 음악가였으니 그의 절친한 친구 하르트만도 능히 어떤 동지적 결속이 있었을 것이다.

하르트만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Ukraina) 공화국의 주도(州都) 키에프에 <키에프의 대문(大門)>을 설계해 세운 것으로 건축사에 남아 있다.

키에프의 대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선문의 타입이 아니다. 오히려 동양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에나 나올법한 대문이다. 3개의 아치와 1개의 탑이 붙어 있다. 문은 비례가 맞지 않으나 곡선을 이용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탑에 달려 있는 3개의 종은 직설적이기까지 하다. 대문의 아치와 탑의 둥근 지붕(돔)은 모스크다. 대문은 도시의 문 같지가 않고 목가적인 문으로 보인다.

키에프는 9세기이래 러시아의 3대 도시중에 하나였으며,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라 불렸다. 흑해(Black sea)에 면해 비잔틴, 페르시아와의 교역루트로 발전해 왔으며 1686년에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하르트만과 무소르그스키는 출생신분이나 교육도 비슷했으리라 보여진다. 어린시절부터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중심, 페테스부르크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이다.

무소르그스키는 페테스부르크의 뒷골목 간이술집에서 항구 하역인부나 불량패들과 어울려 지내다 말년에는 알코올중독자로, 행령병자로 지내다 1881년 42세의 짧은 나이에, 간질 발작이 일어나 육군병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고 페테스부르크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묘지에 묻혔다. 도스토예프스키, 글린카도 그 가까이 누워 있다.

이제 이 작은 글을 끝낸다.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이 더 이상 <전람회의 그림>이란 투로 알려지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전람회의 건축 작품>이라 정정되길 바랄 뿐이다.

"...예술은 그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무소르그스키의 말이 지금도 우리 귀에 남아 있다. 음악가 무소르그스키가, 죽은 건축가 하르트만을 영혼 불멸의 세계로 이끌어 내 준 것이다.

우리 음악 작곡가들도 우리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런 명곡을 하나 작곡해 주었으면 하고 초여름 밤의 꿈을 한번 꾸어 본다.

다음에 페테스부르크와 우크라이나에 가면 그의 묘지와 '키에프의 대문'도 찾아가 하르트만의 못다이룬 건축이야기를 그에게 들어봐야지 하고 다짐해 본다. 또한 혹시 그 시대의 그들을 통해 우리 조선에 왔던 러시아의 건축가들에 관한 흔적을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다.

1) 카레보는 그의 탄생 1백주년을 즈음하여 무소르그스키로 개명됐다.

2) 여기의 카타콤베는 로마의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것이다.

3) 프랑스 제정시대에 파리에 있던 궁정인데 세느강에 인접한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지금은 그 궁전의 일부가 루브르 미술관이 되어 있다.

4) 프랑스 중부 리무쟁의 시골도시이다. '칠보'로 유명하다. 파리에서 남행열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